

##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때, 10장과, 11장과, 12장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을 다룬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지의 지역으로 들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개척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기초를 세웠던 곳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잃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미 영접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새롭게 왜곡하므로 그들을 매혹하여 그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는 주된 취지는 개종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실제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새롭게 왜곡한 것과 어떤 새로운 축복들과 새로운 감정의 흥분을 소개하므로 이미 확립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개종시키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기식하는 기생충들입니다.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기초를 세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기를 기꺼이 자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뒤를 이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그 복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개하고,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들의 생각들과 교리들을 확립시키려 했기 때문에 바울을 나쁘게 평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즉 가만히 들어와 사람들을 끌어 바울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기생충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세우고 그들의 파괴적인 교리를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나쁘게 비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린도에 생겼습니다. 고린도에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바울이 전했던 이 순수하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0장, 11장, 1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 사람들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속여 빼앗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1장에서 고린도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에서부터 이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10장 마지막 절에 그는 말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하면서 10장을 끝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 그들 자신을 자랑하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부풀려 올렸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있는 것만큼, 바울은 말하기를, **1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 자랑하기를 원하니, 나로 나 자신에 대해 조금만 나누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고한 은혜와 자비로 행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운이 좋아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특권을 가졌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인정한다면,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의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는 질투를 느끼노라.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끌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사랑을 끌려하고 있고, 나는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끼리라. 왜냐하면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기 때문이라.

나의 소원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선생들을 가졌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믿게 한 나는 너희의 아버이다. 아버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 딸들인 교회를 중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중매로 정했는데, 아버지가 딸이 누구와 결혼하는 가에 관해서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결혼할 때까지 처녀로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가 신랑의 아버지와 결혼 지참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딸을 신부로 세울 때에 한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를 교회에 비교하여 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여 결혼시키려고 정하였노라. 나는 아버로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나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은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주, 다른 예수께로 마음이 끌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순결한 처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개념과 생각들로 오염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한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이러한 선생들도 그들의 간계를 통해 들어와 너희를 속일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여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단순한 복음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또 요구 조건들을 첨가하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이 오셨고, 나의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하고, 기도는 얼마나

하여야 하며, 헌금은 얼마나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또 이러한 많은 것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단순한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했습니다.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신약에 계시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계시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4절에, 태초에 로고스(logos), 즉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러 온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를 전파하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몰몬교인들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 대해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몰몬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루시퍼의 형제였습니다. 예수와 루시퍼가 엘로힘, 하나님께 세상을 구속할 그들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예수가 제안한 계획을 엘로힘은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의 형제 루시퍼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획을 망쳐 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천상의 경쟁심과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형제간에 있는 경쟁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루시퍼의 형제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약에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천사장 미가엘이거나 루시퍼의 형제라고 언급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은 잘 듣는구나! 그들은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 있고, 그들이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5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을 헐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 내가 비록 말에는 좋하나,** 이것이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능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왔을 때, 그의 열망은 달변으로 그들을 개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가 나를 알다시피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였도다.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는 자신을 낮추고, 그들 가운데서 섬겼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 곁에서 일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높이기 위해 그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죄를 진 것이냐? 나는 어떤 헌금도 받지 않았고, 너희로 나를 부양케도 하지 않았으며,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종으로서 왔노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는 다른 교회로부터 보내어진 선교사와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곳곳에 있는 수 백명의 선교사들을 돕는 것처럼 그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교사들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 의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9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나는 너희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았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사취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거리낌 없이 섬겼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게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희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받으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도 뜻하는 바도 아니라.

**11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아신다.

**12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함이로라.** 내가 이 일을 계속하리라. 이런 자들은 나를 대적할 것들을 찾고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를 섬긴다고 비난하는 그들의 비난의 기회를 끊어버리리라.

나의 사역의 처음 17년 동안은 나는 가족을 부양키 위해 세상의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키 위해서 온갖 여러 종류의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벌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우리는 일 주일에 15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일 주일에 25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 일 주일에 2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하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에 불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나의 사역 가운데 처음 17년간을 돌이켜 가리킬 수 있는 이런 나의 진지함을 증거 할 것을 가지고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갈보리 채플에 와서 이곳에서 목사로 섬겼을 때 나는 가족을 부양키 위해 이동 주택을 수리하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바울도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려고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섬기려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이 나를 비난하려고 찾는 어떤 기회도 끊어 버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나와 같이 되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정말로 정직하다면 너희에게서 현금을 걷는 것을 멈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나와 같이 되게 하라. 바울은 그들이 이런 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는 즉시 그들은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들은 참 사도들이 아닙니다. 궤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했습니다.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이요. 그들은 가장하여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에 의해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한 비난입니다. 그는 가차없이 정면으로 저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사단의 종들이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이것은 영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나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을 과장하여 높이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을 조금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말하노라.

18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이런 자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기에 나도 자랑하겠노라. 1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도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너희는 그들을 영접하는구나. 이것은 매우 비꼬는 듯한 말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을 당하였도다.

20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율법의 속박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잡아먹거나 (너희를 이용하거나) 사로잡거나 (그들이 너희를 사취하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영적으로 그들을 학대하게 하는지 바울에겐 믿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21 우리가 약한 것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도 담대할 수 있도다

22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율법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화 주의자들이었습니다.

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욕에 감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사십은 심판의 숫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에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십은 심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했을 때 주야로 사십일간 비가 내렸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십이라는 숫자는 자주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삼십 구는 자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재판소에서 채찍질 하라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을 심판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서른아홉 번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자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십에 하나 감한, 서른아홉번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25 세 번 대장으로 맞고 (용동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파선했는데 한 널빤지를 붙들고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혈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겪었던 위험들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혈벗었으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다른 모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듣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편지들을 보내야 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살피어야만 했습니다.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나도 약하고 애타합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미꽃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확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33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12장에서 그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 중에 얼마를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인내하였던 위험, 고통, 배고픔, 춥고 혈벗음, 바다에서의 위험 등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는 주제를 돌려 그가 받았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계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 주셨던 계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면서 12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12장과 1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던 바울 같은 사람들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경주를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